


디지털 휴머니티의 이해
-연령별 동화 분석



국어국문학과 201423118 김희예



목차

- ✓ 연구주제
- ✓ 연구대상
- ✓ 연구방법
- ✓ 분석 및 해석 (연구과정)
- ✓ 활용방안

연구주제

동화란? -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또는 그런 문예 작품.

동화

유아가 세상을 접하는 중요한 상호작용

현상과 사고를 표상하는 추상적인 어휘 습득 가능
→ 어휘력과 이해력 향상 시킴

단계별/연령별 필수 어휘 리스트 예상
→ 연령별로 어휘, 문장부호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것



연구대상



“무작위로 선별한 총 50권의 동화책”



- 직접 타이핑해서 데이터 수집
- Yes 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총 3개의 서점 별로 각각 최소, 최대 연령 기입
- 0-3세, 4-6세 또는 4-7세로 구분
- 연령이 미정이거나 7세 이상의 동화인 경우 임의로 0-7세 (전 연령) 배정



연구방법

1. 형태소 분석기 (꼬꼬마 분석기)를 사용
2. 문장부호를 포함한 품사를 유의미한 값 위주로 분석
3. 서점과 관계없이 최고연령 3세와 7세에 대한 평균 값
4. 서점별 최고연령 3세와 7세에 대한 평균 값



연구과정 -문장부호

평균 : 상대빈도	열 레이블		
		+ 3	+ 7 총합계
행 레이블			
+ .	0.076213683	0.067669666	0.06937847
+ "	0.047285168	0.025328674	0.027768284
+ !	0.037589801	0.024512266	0.027107015
+ "	0.037283306	0.025616591	0.027225793
+ ?	0.02688152	0.013699206	0.016177931

→ 3세 동화에서 문장부호 사용량이 더 많다

마침표의 사용 빈도가 3세 동화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3세 동화가 7세 동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큰따옴표도 3세 동화에서 2배 가량 더 많이 사용되고 물음표와 느낌표 역시 7세 동화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육아 지식을 참고하자면 3세 이하는 책을 직접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보호자가 읽어주는데 이때 실감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연동화 형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접 대화를 전달하는 대화체 형식을 구사하기 위해 큰따옴표가 많이 사용되고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느낌표와 물음표 역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과정 -종결어미

단어	3세	7세
어요	0.041193009	0.033640401
을까요	0.04	0.01525714
요	0.015704905	0.01358441
아요	0.021309124	0.009095489
습니다		0.013321368
버니다		0.011044797
답니다	0.000906618	0.003836208

→ 3세 종결어미 (-요)
7세 종결어미(-다)

3세 동화에서는 대체로 ‘-요’의 종결어미로 문장을 맺고 7세 동화에서는 ‘-다’의 종결어미로 문장을 맺는다. 이같은 결과 역시 앞서 말한대로 3세와 7세의 언어 발달 차이로 인한 동화 구성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구연 동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 되는 3세 동화에서는 구어체 형식의 ‘-요’체가 많이 사용된 것이고 직접 동화를 읽을 수 있는 7세의 동화에서는 ‘-요’체 뿐만 아니라 문어체 형식의 ‘-다’체 또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7세의 동화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종결어미가 사용되어 분산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연구과정 -연결어미

단어	3세	7세
거나	0.020979021	0.002364066
고	0.025480518	0.016522891
나	0.008	0.003422025
자마자		0.001398601
다면		0.002111963
ㄹ지라도		0.002364066
라면		0.009581857

→ 3세 연결어미 한정적
7세 연결어미 다양

3세 동화에서는 주로 ‘거나’, ‘고’, ‘나’와 비교적 기본적인 연결어미를 사용하였다. 간단히 두 문장을 나열하거나 대조하는 대등적 연결어미를 사용하였는데 7세 동화에서는 역시 대등적 연결어미의 사용도 보이지만 ‘자마자’ 처럼 시간 순서가 있는 연결어미나 ‘ㄹ지라도’, ‘다면’, ‘라면’ 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정하는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연결어미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언어 구사능력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7세의 동화에서 다양한 연결어미가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3세 이하의 연령은 부모가 동화를 읽어준다는 점과 어차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어미를 듣고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사료된다.



연구과정 -서점 분류 기준

평균 : 횟수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서점1	서점2	서점3	3 요약	
"	10.5	2.5	13.16666667	10.5	
"	13.66666667	4	14.4	13	

→ 서점2 (교보문고)의 선정 기준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다

교보문고가 나눈 3세 동화의 기준과 다른 서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세의 동화가 구연동화 형태이고 대화체 라는 짐작과는 다르게 교보문고의 3세 동화는 큰따옴표의 평균 횟수가 현저하게 낮다. 아마 교보문고의 3세 동화는 구연동화 형태가 아니고 어휘의 난이도나 사용된 문장의 문법의 난이도로 분류된 동화일 것이다.



연구 활용 방안

- 연령별 필수 어휘집

→ 보다 더 많은 동화책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연령별로 자주 사용된 명사나 동사, 형용사를 뽑아낼 수 있다. 따라서 연령별 필수로 알아야하는 어휘를 체계적으로 묶을 수 있다. 유아의 교육에 이용될 것.

- 서점 별 연령 분류 기준

→ 기존에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던 동화책을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 분류 할 수 있다. 위의 연령별 필수 어휘집과 더불어 동화에서 자주 사용된 어휘와 그 난이도를 기준으로 연령을 분류하고 연령에 맞게 동화책을 읽힐 수 있다.



감사합니다.